

ILO 핵심협약에 맞는 온전한 노동법! 금속노동자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금속노조가 시작합시다. 금속노조 투쟁을 만드는 선봉인 전체 간부 대오 1만명이 국회를 포위합시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에 노동조합 손발을 묶는 노동법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제대로 된 노동법을 만들라고 요구합시다.

노동 존중이 사회정의의 출발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신을 담은 3개의 핵심협약을 대한민국이 비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는 핵심협약의 기준을 노동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한국 노동법과 노동행정이 ILO 협약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무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ILO 핵심협약 어디에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제한을 두라고 나오니까.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 요구를 무시하라고 나오니까. 파업에 손해배상을 물리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임오프 제도와 창구단일화라는 기괴한 내용은 ILO 협약에 없습니다. 회계공시 같은 억지수단을 만들어 노동조합 자주성을 파괴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방위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부정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노사가 자율로 정할 사항과 노조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를 모조리 법으로 금지하고 방해하는 한국 노동법은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대놓고 거스르고 있습니다.

협약비준 국가답게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조항을 개선하라고 ILO는 해마다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관련법을 손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정부와 국회의 주장은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국회는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제거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90%, 전체 조직 노동자의 60%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속한 현실에서, 여전히 산별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심판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정권을 향해 금속노동자가 다시 분노의 주먹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입법을 주도해야 할 민주당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 투쟁하는 노동자의 강력한 경고를 날립시다.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바꿔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성난 목소리로 요구합시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듯, 일하지 않는 국회라면 너희들도 모두 심판하겠다는 노동자의 결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6월 12일, 금속노조의 선봉인 1만 확대간부가 국회 앞으로 집결합니다. 분노와 의지로 무장하고 서울로 향해 주십시오. 현장의 요구를 어깨에 얹고 상경 버스에 올라서 주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투쟁의 수위가 노동법 개정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6월의 투쟁을 동력으로 7월의 파업을 향해 전진합시다. 파업의 힘으로 2024년 투쟁의 정점에 오르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합시다. 너나없는 투쟁으로 승리합시다!

2024년 5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장창열
수석부위원장 이상섭
부위원장 고은하, 김병조
박상만, 서쌍용
손덕현, 최순영
허원
사무처장 엄상진

경기지부장 이규선
경남지부장 김일식
경주지부장 정진홍
광주전남지부장 정준현
구미지부장 김준일
대구지부장 장세은
대전충북지부장 권현구

부산양산지부장 조성민
서울지부장 김태을
울산지부장 김기호
인천지부장 안대원
전북지부장 차덕현
충남지부장 정상만
포항지부장 신명균

기아자동차지부장 하임봉
만도지부장 신성목
쌍용자동차지부장 김득중
한국지엠지부장 안규백
현대자동차지부장 문용문
현대중공업지부장 백호선